

18. ㉠, ㉡과 관련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 ㉡ “처음에 그놈이 총렬 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① ㉠을 보니, /호첩에게 묻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

●판단 과정

㉠과 ‘연고의 내용’은 총렬부인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 공통된 사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우선 정을선은 전장에서 편지를 받고, 호첩을 불러 연고의 내용을 묻는다. 이후 중군장에게 집에 변고가 있다고 말한 뒤, 집으로 출발한다.

정을선은 집에 도착하여 월매를 만난 뒤 가장 먼저 총렬부인의 위치를 물어본다. 이때 정을선이 알고 있는 정보는 편지와 호첩에게 들은 연고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호첩에게 들은 ‘연고’의 내용이 ‘총렬부인이 변고를 당했다는 사실’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정을선은 죽기 직전의 월매를 구출하고 총렬부인을 만난 뒤 왕비전에 간다.

여기서 왕비는 정을선에게 알고 있는 ‘사연’을 말하고 정을선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을 말한다.

㉠은 상대방이 말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왕비가 말한 사연 역시 정을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총렬부인이 고초를 겪음)임을 알 수 있다.

● (Tip)관련성

관련성을 판단할 때 굉장히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사건이어도 하나의 서사 안에 있을 경우, 웬만하면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성을 판정할 때는, 웬만해서 된다고 생각하자.

② ㉡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판단 과정

‘상소’의 내용과 ‘이미 아는 바’는 정보량의 측면에서 다르다.

‘상소’의 내용의 경우, 정을선이 사건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으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웁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닛가.”  
 하고 금언이 흥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아뢰었다.

그러나 ‘이미 아는 바’는 정을선은 <총렬부인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정보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18-①의 해설 참조)

● (Tip) 동일성

18-①에서 언급한 ●관련성 과 다르게 동일성을 판단할 때는 다소 엄격하게 보는 것이 좋다.

●다른 풀이

이 지문의 서술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을선이 가진 정보량이 점점 늘어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정을선이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는 시점과 ㉠을 발화하는 시점이 다른 것을 통해 각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판단 과정

승상은 진상규명에 있어서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르새'의 의미를 고려하면, 왕비전에 간 승상의 목적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왕비전에서 왕비를 만난 이후의 승상의 모든 행동이 일관적으로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승상은 작중 계속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승상은 왕비에게 ㉠에 대한 대답을 듣고, 바로 복록을 찾아간다. 이러한 행위가 사건의 진상을 찾는 과정의 일부임을 고려하면, 승상이 진상규명에 있어서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ip)행동을 통한 인물의 심리 추론

이 선지는 정을선의 행동 (왕비에게 대답을 듣고 복록을 찾아감, 일관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함)을 통해 정을선의 심리를 추론하는 선지이다.

④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판단 과정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를 제보한 이는 왕비의 사촌오라비이다.

㉠과 왕비의 대답으로만 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처음에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 이까?”

왕비 왈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㉔ ㉓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  
 균.

●판단 과정

㉓이후 복록은 자결하고 이를 통해 그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㉔에 대한 대담으로 사촌오라비가 왕비에게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을선은 바로 복록을 찾아 나선다. 여기서 '사촌오라비'가 '복록'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지문에서 명시적으로 복록이 '제 죄를 알고' 있다는 서술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복록이 심리적 중압감을 느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틀)인지-심리-행동

이 선지는 독자로서 하여금 복록의 인지와 행동을 통해서 그 심리를 추론하는 것을 요구한다.

우선 '인지'는 등장인물이 알게 된 내용이고, '심리'는 그러한 '인지'를 통해 가진 심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은 그러한 '심리'가 촉발한 행동을 나타낸다.

만약 한 소설에서 창섭이가 의사에게 자기가 탈모라는 사실을 듣고, 허탈함을 느끼며, 다음날 운동을 나가지 않는다고 하자.

이때, 창섭이의 인지-심리-행동 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지	심리	행동
자신이 탈모라는 사실을 알게 됨	허탈함	다음날 운동을 나가지 않음

이제 지문과 선지에 등장한 복록을 인지-심리-행동 틀로 이해해 보자.

㉔ “처음에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  
 이까?”  
 왕비 알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인지[벌써 제 죄를 알고]  
 행동[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인지	심리	행동
(지문)제 죄를 알음	(선지)심리적 중압감	(지문)죽음

더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등장인물을 인지-심리-행동으로 정리할 수 있고, 지문에서 두 가지 정보를 준 뒤, 선지에서 나머지 하나를 물어보는 방식이 많이 출제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18-㉔ 역시 이런 방식으로 선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산문을 읽을 때, 등장인물의 인지-심리-행동을 고려하며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두자.

19.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판단 과정

누명을 썼던 인물은 총렬부인이고, 그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장면은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인이 눈을 떠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년지수의 해갈고 칠년대한의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 주소서.”

번외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인물은 ‘왕비’이다.

왕비 곁에 있다가 양천통곡하시며 왈  
“내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총렬부인을 보리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②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판단 과정

누명을 썼던 인물은 총렬부인이고, 그녀가 한 요청은 자신의 누명을 풀어달라는 것뿐이다. 이외의 요청은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인이 눈을 떠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년지수의 해갈고 칠년대한의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 주소서.”

③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판단 과정

누명의 내용은 총렬부인이 바람을 폈다는 것이지 구덩이와 관련 없다. 구덩이는 총렬부인이 누명을 쓴 후 탈옥하며 피신한 공간이다.

“총렬부인은 어디 계시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알  
“승상은 바빠 총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 울며 알  
“소인이 걸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  
었는지라. 승상이 통곡 알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④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판단 과정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총렬부인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누명을 쓰는 인물은 총렬부인이다. 그리고 공범자인 금연이 누명 전반에 대해 실토하다가 그 구체적인 계략에 대해 노출하는 장면이 지문에 등장한다.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 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금연이 하릴없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북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총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시매 복록이 왕비께 참조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뢴대

이때, ‘총렬부인’을 ‘침소’로 가게 만드는 것도 계략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판단 과정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다양하다. ‘금섬의 진술’, ‘옥졸의 증언’, ‘정을선의 진상 규명 행위’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원인<sup>1)</sup>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를 만류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이는 총렬부인의 누명이 벗겨진 것에 대한 결과 및 반응에 가깝다.

왕비 곁에 있다가 양천통곡하시며 왈  
“내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총렬부인을 보리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1) 필요원인에 대해 잘 모른다면, 여기서는 ‘필요조건인 원인’ 또는 ‘없어서는 안되는 원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독서 지문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20.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정을선전」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뒷글을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난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호기심) ‘므로’의 의미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과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모략은 사람 사이에서 이뤄진다. 누군가(X)가 다른 누군가(Y)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싶을 때, 모략을 사용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인물 간 소통을 요구한다.

즉 모략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략이 서사 전개의 주요 장치로 기능할 경우, 독자가 이를 감상하는데 있어서 인물 간의 소통 양상을 증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① 원수가 중군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융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함

●판단 과정

원수는 중군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라고 하지 않았고, 서융을 사로잡으라고 하지도 않았다.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삼 일 만에 득달하니

우선 정을선은 ‘가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후에 병사들을 인솔해서 ‘오라고’ 했다. 방향성에 대한 감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선지를 공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 서융을 사로잡으라 하지도 않았다. 그저 병사들을 데리고 오라 했을 뿐이다. 이는 지문 후반부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융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웁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닛가.”

정을선이 말을 한 시점은 이미 서융을 정벌하고 돌아오려던 시점이었다. 즉, ‘사로잡는 것’은 이미 끝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발화 시점과 사건의 발생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② 승상이 월매에게 총렬부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을 음.

●판단 과정

승상은 편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시점에 월매를 만나자 총렬부인의 위치를 물어본다.

“총렬부인은 어디 계시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왈  
“승상은 바빠 총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견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아주 단순한 내용일치이다.

③ 금연이 옥졸로부터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얻음.

●판단 과정

금연이 옥졸로부터 옥중 시신 정체와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는 사실은 옥졸의 발화에서 알 수 있다.

하릴없어 옥졸을 잡아들여 엄히 문왈  
“너희는 어찌 총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졸이 급히 여쭙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총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문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④ 옥졸이 승상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판단 과정

옥졸의 의혹제기는 옥졸의 발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하릴없어 옥졸을 잡아들여 엄히 문왈  
“너희는 어찌 총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졸이 급히 여쭙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총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문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어휘) 의혹

의혹의 사전적 정의는 ‘의심하여 수상히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다. 이 맥락에선 옥졸의 발화를 통해 의혹을 제기함을 판단할 수 있다.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는 <발설이 된 듯하다>라는 추측을 나타낸다. 즉, 여기서 옥졸은 “금점이 떠벌리고 다닌 듯 해요”라는 자신의 추측을 정을선에게 전달하고 있다.

⑤ 승상이 금연으로부터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앓아 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음.

●판단 과정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앓아누웠다는 정보를 얻는 것은 금연의 마지막 발화에서 알 수 있다.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 왈  
“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 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금연이 하릴없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북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총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시매 복록이 왕비께 참조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뢴대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 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 구도로 전개되며,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된다.

●(이정표) 예시: 이를테면

예시의 질감을 고려하면, ‘상투적인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남’ 안에 ‘가정 안팎의 서사가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됨’, ‘사건이 선악 구도로 전개됨’, ‘인물의 고난과 감정의 극대화’가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부분	뒷 부분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남	(1)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됨
	(2)사건이 선악 구도로 전개됨
	(3)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됨

우선 (1)을 보자. 가정 안팎의 서사가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된다는 것에서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있을까?

잠깐 고민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고전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남자이고, 그가 가정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여기서 ‘정을선’이 전장으로 갔다가(가정 밖) 가정으로 돌아와서(가정 안) 사건이 진행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박씨전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으나 ‘상투적인’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케이스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2)와 (3)의 경우는 더 생각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의 경우 사건의 선악구도는 <우리팀/적팀>으로 나뉜다. 여기서도 <정을선네 국가/서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가정소설의 경우 사건의 선악구도는 <선인/악인>의 구도를 가지고 여기서도 <충렬부인/정렬부인>의 구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되는 것은 대부분의 고전소설에서 차용하는 양식이라 굳이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Tip) 보조사: 그러면서도

보조사(도)의 질감은 서로 다른 것들의 위계를 같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도’의 역할도 그러한데, 서로 다른 것들을 ‘서술 효과’라는 위계로 묶어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된다.

‘이 과정에서’를 고려하면,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는 앞서 제시된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서술 방식)의 효과임을 알 수 있다.

바로 뒤에 ‘그러면서도’를 통해 독자는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된다.> 역시 서술 방식의 효과임을 보여준다.

즉 다음과 같이 정보를 정리할 수 있다.

<p><b>1. 정을선전의 서술방식: 상투적인 모습 혼재</b></p> <p>(1)남주인공 매개</p> <p>(2)선악 구도 전개</p> <p>(3)고난과 감정 극대화</p>
<p><b>2. 서술 방식의 효과</b></p> <p>(1)거시적 갈등 축소</p> <p>(2)등장인물 위계 변경</p> <p>1) 하층 ⇒ 상층</p> <p>2) 상층 ⇒ 하층</p>

●(호기심) 사회와 개인

이 지문을 해설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보기>의 일부다처제로 인한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인성문제로 축소하는 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이다. 이에 대한 짧은 답변을 해보겠다.

우선 일부다처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다. 이는 ‘첩을 두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첩을 가지는 문제와 별개로 일부다처제는 공식적인 아내(처)를 가질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의 하층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지도층에서 상속의 문제와 결부되어 문제를 야기한다.

작중에서 정을선은 제후국의 왕자이다. 정을선의 모친이 ‘왕비’이고 정을선이 황제에게 명을 받아 ‘원수’로 전장에 나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제후국들은 ‘조선’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조선에서도 왕위 계승 문제로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만 봐도 이방원의 난 등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렬부인'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총렬부인이 구덩이 속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아 총렬부인이 출산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는 정렬부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총렬부인의 아들이 정식 후계자가 된다면 훗날 자신을 포함한 가솔들이 숙청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식 판본에서 정렬부인의 자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정렬부인이 생존을 위해 다른 부인들을 먼저 숙청하려는 것은 정렬부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기인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즉 개인의 생존 문제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일부다처제로 인한 개인의 어쩔 수 없는 생존방식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정을선전은 이렇게 개인에게 부도덕적 행위를 강요하는 구조적 장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단 그저 정렬부인 개인의 인성 문제로 몰고 간다.

<보기>에 나타난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는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서술된 것이다.

①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판단 과정

상소의 내용을 보면, 대원수와 가장의 모습이 각각 드러난다. <보기>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남주인공이 가정 안(가장으로서의 모습), 가정 밖(대원수로의 모습)의 사건에 두루 관여함을 알 수 있다.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으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가정 밖)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가정 안)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웁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닛가.”

② 승상이 총렬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임을 알 수 있군.

●판단 과정

승상이 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을 극대화하고,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감정’을 극대화함을 알 수 있다.

“총렬부인은 어디 계시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알  
“승상은 바빠 총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견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 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데 부인이 눈을 떠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년지수의 해갈고 칠년대한의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 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③ 왕비가 '양천통곡'하는 장면에서, 충렬부인의 수난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판단 과정

왕비가 통곡하며 하는 발화에서 정렬부인을 악녀로 칭한다. 이는 충렬부인의 수난이 악녀의 탓이라는 왕비의 인식을 보여준다.

왕비 곁에 있다가 양천통곡하시며 알  
“내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충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부인을 보리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④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판단 과정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지도 않는다.

우선 월매가 모시는 주인은 '왕비'이다. 이는 지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쭙오되 “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그리고 월매는 왕비에게 충렬부인의 위치를 토설치 않으므로 진실을 밝힌다고 할 수도 없다.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쭙오되 “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게다가 월매는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려면, 작중에서 '아 내가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어야지!'와 같은 월매의 심리가 직/간접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중에서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월매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할 뿐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틀)사실/인식을 알아두면 좋다. 월매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고 싶은 월매의 욕망(인식)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⑤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가정의 상층 인물이 자신의 위엄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희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판단 과정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소리에 똥을 싸며 반응한다. 이는 가정의 상층 인물인 정렬부인(귀부인)이 자신의 위엄이 실추되는 행동(똥을 싸)을 보이는 것며 희화화 됨을 알 수 있다.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 앞  
“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 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